

하늘에서 온 AI 각시

- 선녀와 나무꾼의 새로운 이야기 -





2026년 5월부터 기획 7월완성

동화 작가 김종숙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담아내는 “AI 동화 작가”입니다.

따뜻한 수채화 풍의 그림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정한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책상에 앉아 아이들에게 들려줄 새로운 AI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그리고 있습니다.

김종숙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
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
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
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
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
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
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
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
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
요?



제1장: 내변산 깊은 골짜기에 나 타난 날개옷

아름다운 능가산, 부안 내변산 깊은 골짜기에는 마음씨 고운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선녀탕에서 신비한 일이 벌어졌지 뭐유.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선녀의 '클라우드 날개옷'이 나무꾼 눈에 딱 띄었지 뭐여.

"어매, 저게 대체 무슨 옷이 다냐?
빛이 번쩍번쩍하네이!"

나무꾼은 깜짝 놀라면서도 호기심에 날개옷을 살짝 감춰두었어요.



제2장: 똑딱똑딱 오두막 살림

날개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나무꾼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초가집 마루에 나란히 앉아 정을 쌓았지라.

“우리 앞으로 알콩달콩 잘 살아봅시다.”

선녀는 고운 미소를 지으며 나무꾼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의 오두막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어요. 부안 앞바다의 노을처럼 따뜻한 시간이 흘러갔지 뭐요.



제3장: 하늘에서 온 스마트 각시

선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유.
머리가 아주 똑똑한 'AI 천재'였던
거지유!

“우리 힘들게 손으로 일하지 말고
내가 스마트 기기를 좀 써볼게요.”
선녀는 VR 안경을 끼고 척척 집안
일을 정리하고, 홀로그램 화면을
띄워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어유.
반짝이는 로봇 청소기가 마루를 쓸
고 다니니, 오두막은 전통과 미래
가 어우러진 신기한 보물창고가 되
었지라.



제4장: 드론과 태블릿의 명랑 농사

나무꾼도 가만있을 수 없었지유. 선
녀에게 배운 태블릿을 들고 논밭으
로 나갔어유.

"거시기, 드론아! 저기 마실 땡겨오
는 길에 우리 논에 물 좀 듬뿍 주거
라!"

나무꾼이 태블릿 화면을 톡톡 두드
리자, 최첨단 드론이 하늘로 솟 날
아올라 비료를 척척 뿌려주었어유.
올해 부안 쌀 농사는 아주 그냥 대
박이 났지 뭐여! 온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스마트한 농부가
되었어유.



제5장: 네 식구의 행복한 노을

시간이 흘러 오두막에는 귀여운 아
들과 딸, 두 아이까지 태어났어유.
해 질 무렵이면 온 가족이 변산 바닷
가에 모여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구
경했지라.

"어무이, 아버지! 저녁 바람이 참 시
원시원하고 좋네여!"

아이들의 재롱 소리에 나무꾼과 선
녀의 가슴은 사랑으로 몽클해졌어
유.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
었어유.



제6장: 광 깊숙이 숨겨둔 날개옷 의 비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유.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광 깊숙한 곳까지 들
어가게 되었지 뭐유.

"어? 이게 뭐시당가? 반짝반짝 빛이
나네!"

아이들이 뽕뽕 숨겨두었던 클라우
드 날개옷을 찾아내고 만 거에유.
깜짝 놀란 선녀의 눈에 옛기억이 스
치고 지나갔어유. 하늘나라의 데이
터 신호가 날개옷을 통해 찌릿찌릿
전해지기 시작했지라.



제7장: 무지개 빛깔 구름을 타고 승~

날개옷을 입은 선녀의 몸이 사르르
떠오르기 시작했어유.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
들과 나는 잠시 하늘나라로 다녀와
야겠어요."

선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무지개
빛깔 구름 위로 승 날아올랐어유.
나무꾼은 깜짝 놀라 두 손을 뻗었지
만, 선녀는 이미 아스라이 먼 하늘
너머로 사라지고 없었지 뭐유. 오두
막에는 허전한 바람만 썩~ 불어왔어
유.



제8장: 스마트폰 액정에 고인 눈물

텅 빈 초가집 마루에 홀로 남은 나
무뎠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엉엉 울
었어유.

"내 각시, 내 새끼들 보고 싶어서 어
쩐다냐..."

나무꾼의 손에는 선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뜬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
유.

배터리가 다 달아 화면은 꺼졌지만,
그리움만은 꺼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가득 고였지라.



제9장: AI 사슴의 기적 같은 동아줄

그때,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을 가진
딥러닝 AI 사슴이 꺽충꺽충 뛰어 나
타났어유.

"나무꾼 아재, 그렇게 울기만 하면 쓰
것소? 내가 최신 위성 위치 다 찾아냈
구만유!"

사슴이 이마의 AI 센서로 하늘을 퍽
스캔하더니, 하늘에서 튼튼한 황금빛
동아줄과 두레박을 똑딱 내려주었어
유.

"어휴, 진짜 고맙다, 사슴아!" 나무꾼
은 눈물을 쓱 닦고 희망에 찬 눈으로
두레박을 바라보았어유.



제10장: 영원한 행복의 천상 정원

나무꾼은 두레박을 타고 구름 위 하늘나라로 승 날아올랐어유.

구름 위 천상 정원에서 마중 나온
선녀와 두 아이가 나무꾼을 와락 안
았지라!

"아부지, 이제 안 헤어져도 되네요!

우리 영원히 함께 살아요!"

보름달이 환하게 웃어주고, AI 음악
이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네 식구는 알콩달콩 영원토록 행복
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나무꾼 가족



9 7570TU 566820



06910



Dolarish